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모건소」理論을 中心으로—

呂 井 東

<目 次>

- I.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概觀
- II. 「모건소」의 帝國主義權力政治理論
- III.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I.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概觀

많은 政治上의 概念이 그러하듯이 帝國主義도 또한 論爭的 概念이다. 接近方法 如何에 따라 많은 異論이 提起된다.

帝國主義一般理論樹立에 使用된 分析모델은 哲學의 概念, 經濟의 概念, 社會의 概念, 政治의 概念 등이 있다. 이로 緣由해서 帝國主義哲學理論, 帝國主義經濟理論, 帝國主義社會理論, 帝國主義政治理論 등이 나타난다. 이 중 帝國主義經濟理論이 學說의 體系로서 가장 優秀한 양 많은 사람들로부터 認定받았음은 事實이다. 그렇다면 과연 帝國主義의 經濟的 解釋이 歷史的 經驗의 事實과 一致하는 것인가, 經濟的 解釋의 妥當性은 어느 程度인가, 經濟的 概念이 帝國主義一般理論樹立의 分析모델로서 首肯될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帝國主義經濟理論은 「마르크스」主義理論, 自由主義理論, 惡魔理論⁽¹⁾ (Devil Theory)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마르크스」主義理論의 기초는 모든 政治現象은 經濟力의 反映이라는 確信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라는 政治現象도 經濟制度의 產物로 看做한다.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一定段階이며 帝國主義와 資本主義는 相互 密接不可分의 關係, 아니면 蓋然的 關係로 본다.

「마르크스」主義理論은 「카우츠키」(Karl Kautsky)를 中心으로 하는 穩健派⁽²⁾理論과 「레

(1)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55), p. 44.

(2) Rudolf Hilferding의 『金融資本論』(*Das Finanzkapital*)의 理論도 嚴密히 分析해보면 穩健派에 속하는 理論이다. Hilferding은 資本主義의 自己統制的機能 또는 組織된 資本主義의 可能性을 強調하고 있다.

닌」과 그 後繼者⁽³⁾를 中心으로 하는 強硬派理論으로 나뉜다.

「카우츠키」는 “帝國主義란 高度로 發達한 產業資本主義의 產物이다. 帝國主義는 점점 廣大한 農業地域——그곳에 어떠한 民族이 살고 있던” 相關하지 않고——을 支配하고 併合하려는 모든 產業資本主義의 衝動⁽⁴⁾이라고 말한다. 그후 그는 「힐퍼딩」(R. Hilferding)의 影響을 받아 產業資本主義를 金融資本主義라는 用語로 代替하고 있다. 「카우츠키」理論을 敷衍하면 帝國主義는 高度로 發達한 金融資本이 採擇하는 政策이기는 하나 帝國主義政策은 資本主義가 狀況에 따라 어느 程度 帝國主義政策의 傾向을 떠는 選擇事項이라고 믿는다. 帝國主義와 資本主義의 關係를 「레닌」이나 「부하린」과는 달리 必然的이고 絶對的인 것으로 認定치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카우츠키」의 見解는 帝國主義는 과연 資本主義政策形態를 이루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政策形態가 發生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理論을 提起한다.

帝國主義는 一面 產業國에 의한 農業地域의 榨取를 意味하며, 他面 資本主義相互間의 戰爭을 의미한다. 兩面이 다같이 資本主義의 放棄없이는 帝國主義가 廢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帝國主義戰爭이 점점 大規模로 되어 莫大한 浪費와 破壞가 隨伴되면 戰爭의 損益計算은 收支가 맞지 않을 것이 自明하므로 戰爭政策 그 自體는 存在理由가 稀薄해 저서 다른 政策이 代置될 運命에 처할 법도 하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純全히 經濟的인 觀點에서 본다면 帝國主義는 資本主義諸國家가 聯合하고 資本主義國 相互間에 鬪爭치 않고 戰爭을 終息시킬 超帝國主義(Ultraimperialismus)의 새로운 局面이 나타남도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⁵⁾라고 말한다. 그러한 段階에서는 “國際적으로 統合된 金融資本에 의한 世界共同開發의 新局面이 나타날지도 모른다”⁽⁶⁾고 한다. 말하자면 激烈한 自由競爭이 獨占을 產出한바와 같이 帝國主義列強의 國際的對立은 最強의 帝國主義國家間의 結合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이 「카우츠키」의 超帝國主義理論이다. 이러한 「카우츠키」의 立場은 資本主義의 自己統制的機能과 組織된 資本主義의 可能性을 強調하는 「힐퍼딩」의 理論과 類似하다고 할 수 있다. 超帝國主義理論은 資本主義를 帝國主義的 傾向을 隨伴하기는 하나 帝國主義는 資本主義發展을 促進하기 위해서 選擇된 資本主義의 一政策에 不過한 것이며 그 唯一한 必然的政

(3) 代表的인 後繼者는 Nikolai Ivanovich Bukharin 이다. 그외에 「마르크스」 帝國主義理論에 특히 影響을 준 사람은 Rosa Luxemburg 와 Fritz Sternberg 를 들 수 있다.

(4) V.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50), pp. 145-6.

(5) *ibid.*, pp. 150-151.

(6) *ibid.*, p. 151.

策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더욱 確實히 해주는 또 하나의 根據가 되는 것이다.

「레닌」과 그 後繼者들은 穩健派와는 달리 資本主義와 帝國主義를 必然적이고 絶對적인 相關關係로 본다.

「레닌」은 “商品生産과 私有財産의 一般的인 狀況下에서는 獨占資本家の 企業作用은 必然적으로 金融寡頭支配를 發生케 한다”(7)고 말하면서 “帝國主義란 獨占과 金融支配가 成立되고 資本輸出이 가장 重要한 것으로 되며 國際的트라스트에 의한 世界의 分割이 시작되고 資本主義最強國에 의해서 地球全領土의 分割이 完了된 그러한 發展段階에 있어서의 資本主義”(8)라고 한다. 이러한 帝國主義의 一般的定義를 내리기 위해서 그는 帝國主義의 가장 重要한 特徵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개의 指標를 들고 있다.(9)

첫째, 經濟生活에 있어서 決定的인 獨占을 形成할 수 있는 高度의 發展段階에 到達한 生産 및 資本의 集中.

둘째, 銀行資本과 産業資本과의 融合, 그리고 이 金融資本을 기초로 하는 金融寡頭制의 發生.

셋째, 商品輸出과는 다른 資本輸出이 特히 重要한 意義를 가질 것.

넷째, 世界를 서로 分割하는 國際的 獨占資本家團體의 構成.

다섯째, 資本主義의 強國間에 地球의 領土分割이 完了되고 있을 것.

「레닌」理論의 特色은 帝國主義를 獨占段階에 있어서의 資本主義 즉 金融資本主義와 同一視한 점이다. 資本主義의 獨占段階란 資本主義의 最後段階이며 資本主義로부터 共產主義로 移行되는 過渡的段階에 不過하다고 한다. 따라서 帝國主義는 의당 資本主義의 最後의 現象形態로서 理解되고 帝國主義의 崩壞는 곧 資本主義 그 自體의 崩壞이며 동시에 그것은 共產主義前夜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論理가 그의 有名한 帝國主義의 歷史的地位(Die Historische Stellung des Imperialismus)를 設定하게 되는 根據이며 그것은 특히 그들의 重大한 目標指向的 政策의 意味를 內包하는 것이다.

「마르크스」主義理論(強硬派 穩健派를 包含해서)을 要約하면 帝國主義와 資本主義는 相互間에 必然的 또는 蓋然的 表現(Probable Manifestation)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自由主義理論의 代表者는 「홉슨」(J.A. Hobson)이다. 「홉슨」은 “帝國主義란 資本家が 國內에서 使用 또는 販賣할 수 없는 商品과 資本을 處理할 海外市場과 海外投資를 追求함으

(7) *Ibid.*, p. 74.

(8) *Ibid.*, p. 143.

(9) *Ibid.*, p. 143.

로써 그들의 過剩한 富를 排出할 通路를 擴張하려는 産業大統制者의 努力”(10)이며 “帝國主義란 資本家의 私의 利益集團이 海外에서 그들의 經濟的 利益을 確保하기 위하여 統治機關을 利用함을 意味한다”(11)고 말하였다.

이와같이 「홉슨」은 資本主義體制內에서 商品과 資本의 剩餘를 海外市場이나 海外投資에서 구하려는 데 帝國主義의 根源이 있다고 診斷한다. 이점 「마르크스」主義理論과 恰似하다. 그러나 그는 “國內需要는 固定된 量이고 이 需要量을 超過해서 生産되는 商品은 海外市場을 發見치 않고서는 廢品으로 될 수 밖에 없다는 假定은 전혀 首肯할 수 없다. 오히려 漸增하는 消費者의 需要를 充足시킬 諸産業에 生産力을 配置한다면 國內市場에 供給하기 위해서 雇傭되는 勞動力과 資本의 量을 꼭 制限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한 나라에서 生産되는 富는 무엇이든지 그 나라에서 購買되고 消費된다. 왜냐하면 一切의 生産이 먼저 있고난 然後에 이에 對應하는 購買力과 消費力이 創出되기 때문이다”(12)라고 말하였다. 또 그는 말하기를 “帝國의 擴張이 進步的 産業을 위해서 반드시 必要한 것으로 생각함은 참으로 잘못이다. 새로운 市場과 投資區域의 開發을 必要로 하게 되는 것은 産業의 進歩가 아니라 國內에서 商品과 資本吸收를 妨害하는 바의 消費力의 잘못된 配分이다.……生産과 消費의 正常的인 經濟關係가 維持되지 못하기 때문에 過剩貯蓄傾向이 있는 過剩한 富를 形成한다. 政治力과 經濟力의 運用을 變革하여 剩餘所得을 所有者로부터 移轉될 수 있도록 勞働者에게 高率의 賃金を 支拂하든지 租稅로서 社會에 轉入시키든지 어떠한 方法으로서든 貯蓄代身에 消費를 向上시킬 수 있도록 過剩貯蓄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海外市場이나 海外投資區域을 爭奪할 必要는 없을 것”(13)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홉슨」은 帝國主義를 資本主義 그 自體가 아니라 資本主義體制內에서의 어떠한 不調整의 結果로 보고 帝國主義의 擴張은 不可避한 것도 아니며 剩餘를 처리하는 合理的인 方法도 아니라고 말한다. 剩餘는 購買力의 잘못된 配分이므로 그 解決策은 購買力의 增大와 剩餘貯蓄의 排除와 같은 政治·經濟改革에 의한 本國市場의 擴張에 있다고 主張한다.

「홉슨」은 帝國主義를 經濟的 動機로부터 說明하고 있기는 하나 二者擇一的인 國內政策이라고 믿는 점에서 「마르크스」主義理論과는 儼然히 區別된다.

(10) J. A. Hobson, *Imperialism: A Study*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4), p. 85.

(11) *Ibid.*, p. 94.

(12) *Ibid.*, p. 29.

(13) *Ibid.*, pp. 85-86.

惡魔理論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이나 自由主義理論보다는 低次元의 것이다.⁽¹⁴⁾ 惡魔理論은 그 內容에 따라 一名 戰爭製造理論이라고 意譯되기도 한다.

이 理論은 1934年에서 1936年까지 美國上院에 設置되었던 「나이委員會」—G.P.Nye 氏가 議長이었다—에서 第一次世界大戰과 美國의 投資에 대한 財政上 產業上의 利益을 調査한 公式見解라고 할 수 있다. 이 理論은 매우 單純하다. 이 理論에 의하면 軍需製造業者나 「월」街(Wall Street)에 있는 國際銀行業者들은 戰爭의 結果 많은 利益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戰爭의 勃發에 關心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戰爭利得者는 自身이 더욱 富하게 되려고 戰爭을 計劃하는 戰爭狂이나 惡魔로 變하게 된다. 말하자면 帝國主義와 戰爭一般과는 惡德資本家들의 私私로운 利益을 위한 陰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理論의 骨子라 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理由로 해서 惡魔理論은 戰爭反對論者와 平和主義者에 의해서 많이 引用되어지고 共產主義宣傳機關의 商賣道具로서 使用되어지기도 한다.

「마르크스」主義理論은 資本主義와 帝國主義를 同一化 또는 傾向化로 規定하였고 自由主義理論은 資本主義內에서의 不調整의 結果를 分析抽出하여 帝國主義를 說明하였고 惡魔理論은 帝國主義와 戰爭一般과의 關係를 惡德資本家の 私的利益을 위한 陰謀에 지나지 않는다고 規定하였다.

어느 理論이든 共通의으로 經濟的 要因으로서 帝國主義를 說明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세가지 理論을 帝國主義經濟理論이라고 말한다.

本論文은 帝國主義經濟理論에 正面으로 挑戰한 「모겐소」(H. J. Morgenthau)의 權力政治理論을 中心으로 帝國主義의 經濟的 解釋이 歷史的 經驗的事實과 一致되는 것인지 經濟的 概念이 帝國主義一般理論樹立의 分析모델로서 首肯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分析批判해 보려는 것이다. 이 論文에서 다루는 帝國主義의 概念은 特定한 時期的 場所의 概念이 아니라 普遍的이고 一般的인 類型으로서의 概念임을 밝혀둔다.

II. 「모겐소」의 帝國主義權力政治理論

「모겐소」教授는 政治學者가 社會의 壓力에 屈服하는 限 眞理를 發見하려는 科學的 要請과 道德的 誓約에 背反되는 것이므로⁽¹⁶⁾ 當代世界의 政治的 現實과의 接觸으로부터 政治學을 守護하기 위해서 歷史學과 方法論이 重要함을 提示하였다.⁽¹⁷⁾ 政治學者의 重要한 道德的 誓

(14) Charles A. Beard, *The Devil Theory of War* (New York: The Vanguard Press, 1936).

(15) Hans J. Morgenthau, *op. cit.*, p. 46.

(16) Hans J. Morgenthau, *Dilemmas of politics* (Chicago, 1958) pp. 27—28.

(17) *Ibid.*, p. 31

約은 社會에 대해서가 아니라 眞理에 대해서다. 換言하면 政治學은 實際的 救濟策을 探究하는 것이 아니라 實際的 諸問題의 理解를 深察함으로써 보다 高次的인 實用主義(a higher practicality)에 貢獻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겐소」는 科學的 要求에 관한 限 세가지 基本的 提案—즉 政治學에 있어서 政治哲學의 重要性, 政治學과 政治理論의 同一視, 政治問題에 대해서 客觀的이고 一般的인 眞理를 傳達할 政治學의 能力—을 重視하면서 政治學의 理論化役割을 強調하고 있다.⁽¹⁸⁾

그의 體系化와 理論化의 基本的 立場은 철저한 現實主義的 立場이다. 그는 유토피안의 立場과 리얼리스트의 立場은 根本的으로 相異한 思想學派에 屬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¹⁹⁾ “國際政治는 다른 어떠한 政治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權力鬭爭이다. 國際政治의 窮極目標가 빛이든 權力(Power)은 항상 直接的인 目的”⁽²⁰⁾이라고 말하면서 리얼리즘의 6個原則⁽²¹⁾을 들고 있음은 너무도 有名하다. 그는 權力을 定義하기를 “權力이란 一方이 他方에 대한 精神과 行動을 支配하는 것이다. 政治力이란 公權의 保持者間 또는 公權의 保持者와 人民一般間의 相互統制關係를 指稱한다”⁽²²⁾고 말하면서 權力의 心理的根據는 支配하려는 衝動 말하자면 支配欲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支配하려는 衝動은 生을 營爲하려는 衝動과 生殖하려는 衝動과 함께 人間의 三大衝動의 하나라고 한다. 權力政治는 모든 人間의 共通的인 支配欲에 根據하고 있으며 社會生活 그 自體로부터 分離할 수 없다고 말한다.⁽²³⁾ 이와같이 그는 政治力을 心理的으로 理解하면서 철저한 現實主義的인 權力政治理論을 根幹으로 理論體系化를 試圖하고 있다.

이러한 「모겐소」의 權力概念, 權力의 心理的根據인 支配欲, 철저한 現實主義的 立場등

(18) *Ibid.*, pp. 32ff.

(19) Hans J. Morgenthau, “Another Great Debat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XLXI (Dec. 1952), No. 4. pp. 961ff.

(20)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 25.

(21) *Ibid.*, pp. 4—13.

「모겐소」가 말하는 政治的 Realism의 6個原則은 다음과 같다.

1. 政治는 不變的인 人間性에 뿌리박은 客觀法則(權力鬭爭)에 의해서 支配되기 때문에 合理的 客觀的 理論이 可能하게 된다.
2. 政治的 Realism의 中心概念은 權力으로서 規定되는 利益의 概念이다. 이것이 政治를 다른 事象으로부터 區別하는 徵表다.
3. 利益의 概念은 政治行動을 規定하는 永續的인 基準이나 狀況에 따라서 變化한다.
4. 政治的 Realism은 政治行動의 道德的 意味를 自覺한다. 더욱이 道德命合과 政治行動成功에의 要求와는 避치 못할 緊張이 있음도 自覺한다.
5. 國民的인 道德과 普遍妥當한 道德은 區別해야 한다.
6. 政治的 Realism의 自律性을 主張하면서 다른 方法에 의한 研究方法을 拒否해야 한다.

(22) *Ibid.*, p. 26.

(23) *Ibid.*, p. 36.

Hans J. Morgenthau, *Scientific Man vs Power Politics* (Chicago: 1946), p. 9.

은⁽²⁴⁾ 그대로 그의 帝國主義理論에 適用되어 있고 또한 그 바탕이 되어있음은 贅言을 要치 않는다.

「모겐소」는 國內政治와 國際政治는 權力鬭爭이라는 同一現象의 두가지 相異한 表現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의 基本的인 立場으로부터 國內政治든 國際政治든 세계의 基本的인 類型的의 하나로 還元될 수 있다고 본다. 즉 政治政策은 힘을 維持하는 것 아니면, 힘을 增大하는 것 아니면, 힘을 誇示하는 것 중 그 어느 것에 屬한다고 본다.⁽²⁵⁾ 힘을 維持하는 政策은 現狀維持政策이요, 힘을 增大하는 政策은 帝國主義政策이요, 힘을 誇示하는 政策은 示威(威信)政策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帝國主義란 무엇이나? 그는 말하기를 “帝國主義란 現象을 破壞하고 2國이나 그 이상의 國家間的의 權力關係의 顛倒를 目的으로 하는 政策”⁽²⁶⁾이라고 簡明하게 定義한다. 그리고 그는 帝國主義를 說明해 나가는 過程에서 帝國主義의 形式을 誘引(inducement), 目標, 方法의 세가지 觀點으로부터 分析한다. 誘引으로서는 첫째, 戰勝—戰勝國이 敗戰國의 永久的인 主人으로 되어 戰後의 現狀을 戰前의 現狀과 代替하려는 意圖에서 비롯되는 防衛戰爭의 帝國主義—둘째, 敗戰—戰勝國으로부터 意圖된 敗戰國의 永久的 從屬化에 對抗하려는 敗戰國의 挑發意欲으로부터 발생하는 帝國主義—세째, 弱點—弱小國과 政治的 眞空狀態의 存在가 強國의 擴張政策의 有利한 狀況으로 되는 帝國主義—을 提示하고⁽²⁷⁾ 目標로서는 첫째, 世界帝國, 둘째, 大陸帝國, 세째, 局地的優勢를 들고 있으며⁽²⁸⁾ 方法으로서는 첫째, 軍事的帝國主義, 둘째, 經濟的帝國主義, 세째, 이데오르거나 기타의 心理的 諸手段에 의한 文化的 帝國主義를 들고 있다.⁽²⁹⁾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겐소」의 見解다. 「모겐소」는 帝國主義政策은 現狀을 破壞하고 權力關係를 顛倒하는 政策이라고 規定하지만 國家權力の 增大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外交政策이 반드시 帝國主義의 表現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한다. 權力關係에서 調整단을 피하는 政策은 現狀維持政策의 範疇에 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添加하여 既存의 帝國를 保全할 目的으로 하는 外交政策도 반드시 帝國主義는 아니라고 한다. 그 具體的 範例로서 1874年 英國「더스레리」(Benjamin Disraeli)保守黨의 選舉綱領인 帝國主義의 概

(2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pp. 4—44.

(25) *Ibid.*, pp. 35—36.

(26) *Ibid.*, p. 42.

(27) *Ibid.*, pp. 50—51.

(28) *Ibid.*, pp. 52—54.

(29) *Ibid.*, pp. 54—59.

念을 들고 있다. 當時 保守黨의 帝國主義概念은 단지 自由黨의 코스모폴리타니즘과 國際主義에 대한 對立概念에 不過한 것이었으며 그 具體的인 表現은 帝國聯邦(Imperial federation)⁽³⁰⁾이라는 政治計劃으로서 이 計劃이 設定되고 實施되었을 때는 이미 英國의 領土的 擴張은 거의 끝났을 때다. 그러므로 當時에 英國保守黨이 내세운 帝國主義計劃은 本質적으로 擴張이 아니라 併合(Consolidation)政策이었다는 것이다.⁽³¹⁾ 當時의 保守黨政策은 既存의 所有地를 確保하고 利用하고 配分을 安定하려는 保守政策이지 결코 帝國主義政策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例로서 20世紀初期로부터 二次大戰까지의 美國外交政策을 들고 있다. 當時의 美國外交政策은 19世紀의 帝國主義的 大擴張以後에 遂行되었던 併合政策, 保護政策, 開發政策으로서 現狀維持政策에 屬한다고 한다.⁽³²⁾

이와같이 「모겐소」는 帝國主義는 國家權力の 擴張過程에서 意味를 賦與할 것이지 過程이 지난 然後에 回顧調로, 非難調로 意味를 賦與함은 잘못이라고 한다.

帝國主義를 國家權力の 擴張過程에서 說明하는 立場에 대해서는 全적으로 同感이다. 그러나 「모겐소」가 例示한 歷史的 範例는 잘못되었음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모겐소」가 範例로서 取扱한 몇가지의 歷史的 事實은 「모겐소」의 論證과 相反되기 때문이다. 特히英國의 境遇는 그러하다. 英國의 경우는 그 當時나 그 以後의 外交政策이 併合政策, 調整政策 保守政策만이 아니라 儼然히 擴張政策도 並行하고 있었다.

다음과 같은 統計는 그 當時 以來 英國의 擴張政策을 立證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1876년에 英國이 獲得한 植民地와 植民地人口는 面積 2千2百萬5千平方Km, 人口 2億5千1百90萬이던 것이 1914년에는 面積 3千3百萬5千平方Km, 人口 3億9千3百50萬名이나 되었다.⁽³³⁾ 다른 統計에 의하면 1884年으로부터 15년 동안에 3百7萬千餘平方哩의 植民地를 追加取得했다.⁽³⁴⁾ 1874년부터 1900년까지 英國이 取得한 植民地領域과 人口를 具體적으로 表示하면 다음과 같다.⁽³⁵⁾

(30) 帝國聯邦計劃의 重點은

1. 英國과 英屬領을 保護關稅의 助力으로서 統一된 帝國으로 統一하는 것.
2. 英國人의 自由植民地를 保護하는 것.
3. 統合軍隊
4. London 에 中央代表機關을 設置하는 것.

(31) Hans J. Morgenthau, *op. cit.*, p. 43.

(32) *Ibid.*, p. 44.

(33) 神川彦松, 『近代國際政治史』 下卷Ⅱ p. 30

(34) J. A. Hobson, *op. cit.*, p. 19.

(35) *Ibid.*, p. 17.

	Date of Acquisition.	Area Squaremiles.	Population.
Europe—			
Cyprus	1878	3,584	237,022
Africa—			
Zanzibar and Pemba	1888	1,000,000	{ 200,000
East Africa Protectorate	1895		{ 2,500,000
Uganda Protectorate	1894—1896	140,000	3,800,000
Somali Coast Protectorate	1884—1885	68,000	(?)
British Central Africa Protectorate	1889	42,217	688,049
Lagos	to 1899	21,000	3,000,000
Gambia	to 1888	3,550	215,000
Ashantee	1896—1901	70,000	2,000,000
Niger Coast Protectorate	1885—1898	{ 400,000 to 500,000	{ 25,000,000 to 40,000,000
Egypt	1882	400,000	9,734,405
Egyptian Soudan	1882	950,000	10,000,000
Griqualand West	1871—1880	15,194	83,373
Zululand	1879—1897	10,521	240,000
British Bechuanaland	1885	51,424	72,736
Bechuanaland Protectorate	1891	275,000	89,216
Transkei	1879—1885	2,535	153,582
Tembuland	1885	4,155	180,130
Pondoland	1894	4,040	188,000
Griqualand East	1879—1885	7,511	152,609
British South Africa Charter	1889	750,000	321,000
Transvaal	1900	117,732	1,354,200
Orange River Colong	1900	50,000	385,045
Asia—			
Hong Kong (Littoral)	1898	376	102,284
Wei-hai-wei	—	270	118,000
Socotra	1886	1,382	10,000
Upper Burma	1887	83,473	2,046,933
Baluchistan	1876—1889	130,000	500,000
Sikkim	1890	2,818	30,000
Rajputana (States)	since 1881	{ 128,022 62,661 80,000	12,186,352 785,800 2,543,952
Burma (States)			
Jammu and Kashmir			
Malay protected States	1883—1895	24,849	620,000
North Borneo Co.	1881	31,106	175,000
North Borneo protectorate	1888	—	—
Sarawak	1888	50,000	500,000
British New Guinea	1888	90,540	350,000
Fiji Island	1874	7,740	120,124

이와같이 英國은 1874年以後에도 줄곧 帝國主義政策을 遂行해왔다.——帝國主義를 經濟의 利害要因으로 說明하지 않고 權力政治의 要因으로 說明하더라도——「모겐소」의 歷史的 範例에 대한 論證은 英國의 歷史的 經驗과는 相反된다. 「모겐소」가 이와같이 歷史的인 經驗과 相反된 論證을 했기 때문에 그의 理論展開方法이 意圖된 政策의 考慮에서 出發한 것이 아닌가하고 疑心을 받게되고 非難을 받게되는 것이다.

몇가지의 歷史的 範例를 意圖된 政策의인 考慮에서 歪曲解釋하였다고 해서 帝國主義의 解釋方法에 있어서 權力政治理論 그 自體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範例에 대한 故意的인 歪曲解釋 그 自體가 잘못이다.

帝國主義權力政治理論은 經濟理論에 대한 挑戰理論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經濟理論에 대한 「모겐소」의 批判을 살펴보면 確實해 진다.

「모겐소」는 그의 力作「國際政治論」에서 帝國主義經濟理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하였다.⁽³⁶⁾

“洗鍊되고 素朴한 모든 帝國主義의 經濟的 說明은 歷史的 經驗을 論證하는데 妥當性을 喪失하였다. 帝國主義의 經濟的 解釋은 몇개의 孤立된 事例에 限定된 歷史的 經驗을 歷史的 普遍法則으로 만들었다. 19世紀末로부터 20世紀에 이르기까지 몇개의 戰爭은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주로 經濟的目的에서 遂行되어졌음은 事實이다. 그 代表的인 例로서 南阿戰爭(Boer war 1899—1902)과 차코戰爭(Chaco war 1932—35)을 들 수 있다.……그러나 資本主義의 成熟期를 통털어 強國이 수행한 戰爭은 南阿戰爭을 除外하고는 거의 全部가 經濟的目的에서 戰爭을 수행한 것이 아니다. 例컨대 1886年의 普奧戰爭, 1870年의 普佛戰爭은 어떠한 經濟的目的에 重要性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獨逸內에서나 歐洲國際社會內에서 새로운 權力的 配分을 目的으로 遂行된 政治戰爭이며 참으로 帝國主義戰爭이었다. 「크리미아」戰爭(1854—56), 美西戰爭(1898), 日露戰爭(1904—5), 伊土戰爭(1911—12) 그리고 몇차례의 「발칸」戰爭도 만약 經濟的目的이 있었다면 그것은 附隨的인 구실밖에 못하였다. 兩次的 世界大戰은 世界의 支配는 아니더라도 歐洲支配를 目的으로 한 政治戰爭이었음은 確實하다.……戰爭에서 結果되는 經濟的得失은 勝利와 敗北의 政治的 副產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더우기 責任있는 政治家의 心中에서 戰爭과 平和의 問題를 決定한 動因은 戰爭의 結果로서 附隨되는 經濟的인 效果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었다.……”

資本主義以前的 帝國建設過程에서 나타난 證據에 따라 諸理論을 立證해보면 歷史的 證明은 經濟理論의 論爭에 더욱 不利한 바 있다. 古代「이집트」, 「앗시리아」, 「페르샤」帝國

(36) Hans J. Morgenthau, *op. cit.*, pp. 46—50.

의 토대를 이룬 諸政策은 政治的意味로서는 帝國主義的이었다. 「알렉산더」大王의 征服과 紀元前最後世紀의 「로마」政策도 帝國主義的이었다.……「루이」14世, 「피터」大帝, 「나폴레옹」1世도 前近代資本主義時代의 偉大한 帝國主義者였다.

이러한 前資本主義時代의 모든 帝國主義는 資本主義時代의 帝國主義와 같이 既存의 權力關係를 顛倒하고 그 代身 帝國主義的權力의 支配를 追求하려는 傾向을 가지고 있었다.

「알렉산더」大王과 「나폴레옹」1世는 「히틀러」(Adolf Hitler)와 類似하다. 그들은 個人的 利得을 위해서 또는 經濟體制의 不調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帝國主義政策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그들이 目的한 바는 權力이지 經濟的利得은 아니다.……

經濟理論 특히 惡魔理論에 의하면 資本家는 政府를 帝國主義政策을 煽動할 手段으로서 利用한다. 그러나 經濟的說明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引用된 歷史的事例의 調査에 의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實際的으로는 政治家와 資本家사이에는 그 逆關係가 存在하고 있다. 帝國主義政策은 이 政策을 支持할 것을 資本家에게 要求한 政府에 의해서 生成되었다. 歷史의 證據는 經濟에 대한 政治的 優位를 나타내고 있다.……

資本家階級과 資本家個人的 確信은 資本主義의 利益은 戰爭이 아니라 平和를 要求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平和만이 資本家の 行動이 依存할 合理的計算을 可能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資本家集團은 戰爭에 反對한다. 그들은 여러번 戰爭으로 誤導될지도 모르고 또는 現實的으로 戰爭으로 誤導되었던 帝國主義政策을 發案한 것이 아니라 疑惑을 느끼면서도 壓力에 의해서 支持한데 不過한 것이다.

이와같이 전혀 經驗的事實과 相反되는 帝國主義經濟理論의 學說體系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두가지 理由를 들 수 있다. 하나의 理由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政治問題를 經濟問題로 還元시키려는 當代의 一般的인 傾向때문이다.⁽³⁷⁾ 資本家도 그 批判者도 함께 그러한 根本的인 過誤를 犯하고 있다.……兩側이 모두 政治問題에 대한 經濟的救濟策을 期待하였다.……資本主義의 古典時代에 있어서는 資本主義體制의 支持者든 反對者든 企業家の 行動을 決定한다고 생각되는 經濟的動機가 모든 人間의 行動을 決定하는 양으로 믿었다.

帝國主義의 經濟的解釋이 쉽사리 認定된 또 하나의 理由는 그것이 그럴듯한 데 있다.……帝國主義는 매우 複雜한 神秘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理論的인 理解로서나 實際行動으로서 帝國主義現象自體를 나타낼 때 이 單純한 公式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誘引할 解答이 自

(37) *Ibid.*, pp. 28 ff.

動的으로 마련될 것이다.”

「모건소」의 批判要旨은 以上과 같다. 그의 理論과 批判을 洞察해 볼 때 權力的 要因을 帝國主義의 動因으로 보면서 帝國主義經濟理論을 批判한 論理의 展開過程은 妥當한 것이 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의 理論은 全的으로 肯定的 面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否定的 面——本質的 問題가 아니라 枝葉的 問題이기는 하지만——이 있음도 否認할 수 없다. 肯定的 面과 否定的 面을 要約해 본다.

否定的 面은 대체로 두가지라고 생각된다.

하나는 意圖된 政策의 考慮가 앞서서 歷史的 範例를 풀이하는데 獨斷的인 立場을 取했다는 점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詳細한 批判을 한 바 있기 때문에 添說하지 않기로 한다.

둘째의 否定的인 面은 資本家의 利得과 戰爭一般과의 相互關係를 철저히 逆關係로 보았다는 점이다.——이러한 論理도 意圖된 政策의 考慮로부터 導出된 것이 아닌가 한다—— 歷史的 經驗은 資本家의 利得과 戰爭과의 關係가 반드시 逆關係만이 아니라 相互密接한 聯繫이 있었던 事例도 許多하였다. 代表的인 例로서 第一次世界大戰과 美國資本家와의 關係를 들 수 있다. 確實히 美國資本家들은 第一次大戰의 參戰으로 말미암아 利得이 있었다.⁽³⁸⁾ 資本家의 利得과 戰爭一般과의 關係는 經濟가, 政治의 從屬이든 從屬이 아니든 간에 逆關係와 相關關係가 共히 存在하는 것이다.

「모건소」理論의 肯定的인 面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列擧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權力政治理論을 展開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帝國主義論爭의 本質的 核心을 明快하게 處理한 점이라고도 할만하다. 帝國主義一般理論樹立의 分析모델로서 經濟的 要因보다는 월등히 權力政治的 要因이 適合한 것이다. 「모건소」가 指摘한 바와 같이 古代 中世 帝國主義라든가 現代 帝國主義를 說明함에 있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本來的인 帝國主義라는 語彙의 本質로부터도 그러하다. 왜냐하면 帝國主義란 政治現象에서 抽出된 用語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主義理論으로서 普遍妥當한 一般的인 歷史的 概念으로서의 帝國主義를 說明하는 데는 無理가 아닐 수 없다(三節參照). 「슈페터」(J.A. Schumpeter)의 理論을 보면 帝國主義經濟理論의 잘못을 더욱 두드러지게 해 주고 權力政治理論의 正當性을 補完해 준다.

(38) 學者들의 統計數字를 提示할 것도 없이 Nye 委員會의 報告만 보아도 確實하다.
Charles A. Beard, *op. cit.*,

「슈페터」는 “帝國主義의 本質 그 自體가 經濟的 解釋으로부터 論理的 必然的으로 推論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強調되어야한다”(39)고 말하면서 帝國主義의 本質은 當時의 生産 狀態나 本能의 單純한 反映에 불과한 것이 아니므로 經濟的利害關係만으로써 帝國主義를 解明하려 함은 不當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帝國主義의 一般의 定義를 “國家가 無 制限으로 擴張을 強行하려는 無目的的인 傾向(disposition)”(40)이라고 規定하였다. 또한 그는 古代, 中世, 近代, 現代를 洞察하고서 現代帝國主義를 “歷史的으로나 社會學的으로 君主國家의 構造的要素, 君主國家의 組織形態, 君主國家의 利害關係 그리고 君主國家의 人間態度的 繼承物이다. 部分的으로는 初期資本主義의 方法에 의해서 君主國家가 再組織한 前資本主義的 諸力의 結果였다. 그것은 資本主義 그 自體의 內的論理에 의해서 發生한 것은 아니었다.”(41)고 주장한다.

이와같이 「슈페터」는 帝國主義를 說明함에 있어서 經濟的인 要因을 第二次的인 것으로 取扱하면서 社會心理學的인 立場에서 隔世遺傳的으로 다루고 있다. 「슈페터」의 理論은 接近方法은 다르지만 帝國主義經濟理論의 虛點을 痛烈히 批判한 점에서는 權力政治理論과 一脈相通한다. 뿐만아니라 「슈페터」가 말한 帝國主義의 一般의 定義와 君主國家의 繼承物로서 帝國主義를 說明해주는 건해는 權力政治理論의 正當性을 더욱 確實히 해주는 補助材라고도 할만하다.

「모겐소」 理論에대한 둘째번의 肯定的 面은 帝國主義의 根據를 支配하려는 衝動 즉 支配欲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모겐소」는 帝國主義政策을 權力的 擴張政策으로 보고 權力的 心理的根據를 支配欲에서 推論하였음은 우리가 이미 보아온 바이다.

人類學者나 心理學者는 人間의 支配欲이 어떠한 衝動보다도 強力하다고 한다. 動物學者는 심지어 닭이나 원숭이 같은 動物도 支配하려는 衝動을 갖고 있으며 支配하려는 意志와 能力으로서 社會階級을 만들려는 것을 밝히려고 努力하였다.(42)

人類學者, 心理學者, 動物學者들의 說을 類推適用해 보더라도 人間은 支配欲때문에 權力鬭爭이 必然的으로 發生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帝國主義는 支配하려는 權力鬭爭에서 비롯된다는 論理가 一應 正當하게 느껴진다.

(39) Two Essays by Joseph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Translated by Heinz Norden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64), p. 7.

(40) *Ibid.*, p. 6.

(41) *Ibid.*, p. 97.

(42) Warder Allee, *Animal Life and Social Growth* (Baltimore: The Williams and Wilkins Company, 1932) and *Social Life and Animals* (New York: W.W. Norton and Company, Inc. 1938)

세계의 肯定的 面은 帝國主義에 대한 經濟的 解釋은 「그것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認定받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世紀로부터 20世紀初期까지 歐洲의 學問風土와 學問的 傾向은 政治問題를 經濟問題로 還元시키려는 潮流가 支配的이었다. 1870年代 부터는 歐洲에서 金融資本主義國이 속속 擡頭되자 經濟問題는 가장 主要한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비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當時 많은 學者들은 모든 問題의 해결방법을 經濟的 觀點으로부터 풀이하려고 하는 傾向이 있었다. 帝國主義理論의 境遇는 더욱 그러하다. 帝國主義의 內容은 殺人的이고 神秘的이고 複雜하기 때문에 어떠한 理論으로도 그럴듯한 說明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課題였었다. 이러한 此際에 當時의 經濟萬能의 時代的인 風潮에 便乘한 몇몇의 經濟理論家들은 經濟一元論으로 簡單明瞭하게 帝國主義經濟理論을 展開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明快한 解釋方法이라고 認定받게 되었던 것이다. 「슈페터」의 말을 빌리면 “帝國主義의 「마크스」主義經濟理論은 現代의 一連의 生생한 事實이 完全히 說明된 것 같다. 國際政治의 모든 紛糾는 強力한 分析의 一擊에 의해서 明白히 된 것 같다”(43)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건소」가 批判한 바와 같이 歷史的 經驗을 論證하는데 失敗하였다. 三節에서 보다 具體的으로 分析批判해 보자.

III.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우리는 第一節에서는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概觀을 第二節에서는 「모건소」의 權力政治理論과 그의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을 살펴보았다. 本節에서는 一節과 二節에서 考察한 內容을 土臺로 帝國主義經濟理論에 대한 總括的인 批判을 해 본다.

第一 먼저 「카우츠키」의 超帝國主義理論을 批判해 보자.

超帝國主義理論에 대한 「레닌」의 非難은 매우 辛辣한 바 있다. (44) 「레닌」에 의하면 純粹經濟的으로는 超帝國主義達成의 想定을 可能하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나 現實的으로는 帝國主義의 不均等發展으로 말미암아 그 過程의 進行은 여러 곳에서 沮止되어 超帝國主義가 到來되기 前에 經濟的 政治的 民族的 또는 다른 여러가지 帝國主義世界에 內在하는 矛盾 때문에 帝國主義 그 自體가 破裂되어 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레닌」의 이와같은 理論은 社會主義革命達成의 課題를 超帝國主義成立時期까지 遲延시키려는 機會主義的인 社會主義

(43) J.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and London: Harper and Brothers, 1947), p. 51.

(44) V. I. Lenin, *op. cit.*, pp. 190 ff.

者에 對抗하려는 革命的 社會主義者의 批判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超帝國主義成立 以前에 帝國主義自體의 破裂 즉 社會主義革命으로 超帝國主義의 想定을 否認한 「레닌」의 論據는 是認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論理는 歷史적으로 實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레닌」의 見解가 옳았다면 지금까지 超帝國主義가 成立되지 못했다는 것 뿐이다.

超帝國主義理論의 批判은 「모젠소」의 理論으로부터 誘導하는 것이 正當할 것 같다. 二節에서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모젠소」는 現狀을 打破하기 위한 政策으로서의 帝國主義의 根源을 세가지 誘因으로부터 糾明하였다. 세가지 誘因은 勝戰과 敗戰과 弱點이라고 하였다. 第一次大戰과 그以後의 展開樣相을 살펴보면 帝國主義는 「모젠소」가 지적한 바와 같은 誘因을 갖고 있는 것이지 一元的으로 說明하는 超帝國主義論이나 「레닌」의 社會主義革命理論은 不합되지 않는다.

超帝國主義理論에 따르면 第一次大戰과 같은 大量的 流血과 物資의 消費를 隨伴한 大戰爭을 豫見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第一次世界大戰은 勃發하였다. 게다가 戰爭의 終了는 超帝國主義의 成立이 아니라 오히려 獨逸과 露西亞帝國主義의 崩壞를 隨伴하였다. 또하나 奇異한 現象은 資本主義發展에 가장 後進的인 露西亞帝國主義가 가장 빨리 史上 最初의 社會主義政權을 誕生케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獨占資本主義諸列強은 社會主義革命을 수반하지 않았다. 他方 帝國主義獨逸의 敗北는 戰勝國의 權力關係를 安定시키기는 커녕 1930代로부터 「벨사이유」條約의 廢棄와 敗戰國으로서의 挑發意慾으로 말미암아 逆으로 不均衡의 度を 增大시키기만 하였다.

民族自決主義에 影響을 받아 일어난 中國 印度等地的 民族運動으로 戰爭에 의해서 破壞된 購買力은 資本主義市場을 一層 狹隘化했을 뿐이다. 添加하여 1929年の 世界恐慌은 戰勝國의 經濟關係와 權力關係를 一層 不安하게 만들어 世界는 또다시 戰爭의 씨를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年代의 基本的인 問題는 벌써 帝國主義一般이 아니라 全體主義國家群에 對抗하기 위한 資本主義列強과 社會主義소련이 同盟을 結成하는 모습으로 變質되었다. 第二次世界大戰의 終末은 兩極化體制를 誕生케 했고 이兩極化體制는 점점 分解되어 現今의 國際政治秩序는 再次 多元化傾向을 顯出하고있다.

이상과 같은 一連의 歷史的經驗은 超帝國主義理論의 不當性和 帝國主義誘因의 多元性을 實證해 준다.

다음은 「레닌」의 理論을 批判해보자.

「레닌」은 本論文 第一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帝國主義의 特徵으로서 다섯개의 指標를

들고있다. 처음 세개의 指標는 帝國主義國家內部的 經濟構造의 變化에 관한 것이고 나중 두개의 指標는 對外領域에 대한 政治的 經濟的 支配를 對象으로 하는 것이었다. 「레닌」은 英國, 獨逸, 佛蘭西, 露西亞帝國主義國家들을 例舉하면서 처음 세가지의 對外的指標의 顯現程度의 差異에 따라 各國家의 國內的인 帝國主義의 不均等한 發展을 說明하고있다. 또한 對內的인 指標는 對外的인 指標와 關聯되어 國內的인 發展과 國際的인 發展間에도 不均等發展이 生成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레닌」은 첫째 指標인 獨占과 다섯째 指標인 領土分割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平行的으로 結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이것 또한 「레닌」의 革命的 社會主義者의 考慮가 앞선 獨斷論이 아닐수 없다. 各國에서의 歷史的經驗은 獨占과 領土擴張이 반드시 結付되지도 않았고 兩者의 進行過程에서는 커다란 間隔이 있었기 때문이다. 歷史的인 例를 들어 보자.

結果적으로는 獨占과 領土分割이 結付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1860—1880年代의 英國의 경우는 植民地政策이 獨占化進行에 의해서 推進되었다고 兩者의 關係를 一義的, 直線으로 捕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地球의 分割이 進行되고 있는 이상 獨占단계이든 아니든 모든 國家의 帝國主義는 어떠한 地球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음이 事實이었기 때문이다. 植民地나 未開發地域뿐만 아니라 工業地域도 領土의 野心의 對象地域으로 되고 反對로 經濟的 目的으로서나 自國의 直接的인 目的으로서가 아니라 他國의 指導權을 弱化시키기 위해서 領土確保를 敢行하는 경우도 있었다. 例컨대 獨逸에 있어서 「벨지움」은 英國에 對抗하기 위한 軍事基地로서 重要的 것이었고 英國으로서는 「바그다드」가 「아시아」方面의 交通路를 露西亞와 獨逸로부터 守護하기 위해서 必要的 것이었다. 나의 利益에 서가 아니라 남의 不利益이 結果적으로는 나의 利益으로 된다는 論理는 等價的인 計算原則에 立脚한 經濟理論으로서는 說明될 수 없고 그것은 다만 權力政治理論으로서만이 解明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이 不當함을 實證하기 위해서 概括的이기는 하나 歷史적으로 說明해보려한다.

日清戰爭(1884—85)으로 日本은 極東에서 清國勢力을 逐出하여 勢力을 強化했으나 오히려 日露間의 對立은 激烈하게 되었다. 그래서 露西亞는 佛蘭西와 獨逸을 誘引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遼東半島를 拋棄케 하였다. 그後 줄곧 露西亞는 極東進出을 劃策하였다. 이러한 事情으로 해서 中國을 中心으로 世界列強國의 利益爭奪戰이 벌어져 義和團事件(1900)

(45) *Ibid.*, Chapter VII.

이爆發하는渦中에서도日露間의對立은增大할뿐이었다. 그래서日本은美國과同盟을締結하여日露戰爭(1904—5)을遂行하였다.日露戰爭은單純히日露兩國間의戰爭이 아니라歐洲列強과美國의利害關係가깊이混合된世界戰爭의樣相으로까지展開되었다.日露戰爭의結果日本의帝國主義의野望은成就되었으나日美間의對立으로發展하였다.露西亞는敗戰과國內의革命的蜂起로極東에서는日本과妥協하면서佛蘭西로부터資本輸出을얻어獨逸과對立하게되었다.日露戰爭에의해서遂行된極東의領土再分割이歐洲에서帝國主義의對立을尖銳化하였다.

이와같이日本과露西亞는獨占資本主義國家가아님에도不拘하고政治力,軍事力,地政學的位置,帝國主義強國間의對立등을利用함으로써外的으로帝國主義化를可能케하였다.

他方日本과露西亞는兩國共히國內에있어서는非資本主義的要因,말하자면君主制國家權力,半封建的인農業의利益의收奪,軍事的權力,官僚制등이帝國主義推進의本源的인役割을擔當하였다.

當時露西亞帝國主義政策은「쯔아」(Czar)의專制的權力에의해서「쯔아」의事業으로서遂行되었다.日本은龍대한軍事力を備置하기위해서國民의6割以上을점하고있는半封建的農業에대해서苛酷한課稅를하였다.그리하여日本은正常的인資本蓄積은不可能하였고몇개의財閥이있었으나그것은政治力에結託된財閥이었던것이다.日本資本主義는日清戰爭以後政治軍事力を 바탕으로하여海外市場과原料資源地를獲得하려하였다.이와같이日本帝國主義는本來의資本主義의原則인合理的이고論理的打算에바탕을두고있는것이아니라政治權력과軍事力の盲目的突進에있었던것이다.

先進的인獨逸帝國主義마저도「카이젤」의專制的權力을頂點으로하는「容커」貴族의農業的軍事的勢力이帝國主義源泉의有力한要因이었다.

英國의帝國主義도重商主義時代의遺産인廣大한植民地와外交의運營을掌握하고있었던貴族層의利害가基本的인構成要素로되어있었다.英國은帝國統合의象徴으로서「빅토리아」女王의威信을前面에내세워民衆의마음속에帝國讚美의風潮를造成해나간것은當代에있었던君主制의帝國主義的機能을잘나타내고있는것이다.

佛蘭西의경우도佛蘭西帝國主義에直接的利益을實感하는것은小市民的인金利生活層과貴族層이었음은否認할수없다.

歷史의實際는이러하였으므로「마르크스」主義理論보다는오히려「숨페터」의見解가우리의注目を끌게한다.「숨페터」는“帝國主義는참으로隔世遺傳의이다.……다른말로表現

하면 그것은 現在의 生活條件에서가 아니라 過去의 生活條件에서 생겨나는 것이다.……그것은 社會構造의 隔世遺傳이요 感情에 대한 個人的이고 心理的慣習의 隔世遺傳이다”(46) 고 말하면서 帝國主義의 對外的膨脹에 있어서의 決定的要因은 資本主義 그 自體가 아니라 前資本主義的인 殘存物이라고 指摘하고 있다.(47) 「슈페터」理論의 妥當性 與否는 論外로 하더라도 「슈페터」理論은 「마르크스」主義理論을 批判하는데 至大한 意義를 간직하고 있음은 否認 할 수 없다.

끝으로 몇마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二次世界大戰의 遂行을 위한 資本主義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同盟體制, 二次大戰以後 軍事的 政治的立場으로부터 鼎立된 東西兩陣營과 餘他的 「불력」體制 舊植民地의 獨立達成過程, 1960年以來的 中·소紛爭等등의 一連의 事態는 「마르크스」主義의 帝國主義理論으로서 어떻게 說明되어 질 수 있을까? 第一次世界大戰以前의 古典的時代의 帝國主義는 消滅했다고 일버무릴 것인가? 不當한 말이다. 現在도 如前히 帝國主義의 古典的 時代에 있어서와 같은 意味로서의 資本主義는 殘存하고 있기 때문이다.

結論컨대 帝國主義經濟理論은 「모겐소」가 말한 바와 같이 歷史的經驗을 論證하는데 失敗하였다.(48) 帝國主義의 經濟的解釋은 時限的인 歷史的特殊段階에 있었던 몇가지의 特殊事例에 限해서 單은 妥當한 바 없지는 않았으나 全歷史를 통한 普遍妥當한 帝國主義一般理論樹立의 分析모델로서는 不當하였다.

이러한 論據를 補完하고 帝國主義概念을 分明히 하기 위해서 帝國主義經濟理論의 批判 -J.A. 「슈페터」理論을 中心으로——을 續篇으로 發表할 것을 附言해둔다.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46) Schumpeter, *Imperialism and Social Classes*, p. 65.

(47) *Ibid.*, p. 97.

(48) Hans J. Morgenthau, *op. cit.*, p. 46.